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1. 13.(목) 11:00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전북 소재 중소기업 해외진출 돋는다

- 재외동포청-전북특별자치도, 12일 한인비즈니스 포럼 개최…13일 수출상담회도 열어
- OK-Biz와 해외 바이어 등 80여 명, 120개 중소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손잡고 12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선다.
- 13일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 23명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등 80여 명이 참가 한다. 이들은 전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120개 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 특히 각 기업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매칭하고, 바이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관세, 법률 등 통상정책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
- 재외동포청은 1~2차(6월 부산, 10월 전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에 재외동포 경제인 60명이 참가해 200개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380건, 수출상담 실적 696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 한편 앞서 1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상(韓商) 경제권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를 활성화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을 열었다.

- 포럼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OK-BIZ, 중소기업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주제발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 변 차장은 개회사에서 “K-컬쳐의 전 세계적 인기와 경주 APEC 정상회의로 대한민국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의 최적의 시기이다. 이번 수출 상담회가 전북 소재 우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청은 2026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3건의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끝.

담당부서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	책임자	과장	이경아 (032)585-3220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032)585-3297

